# 인근 대도시까지 그늘 드리우는 '거목'

## 경남 양산·김해

### 통도사·가야불교 두 지역의 '무게중심' 역할
### 화합으로 문화·복지 포교의 질적 성장 견인

거목이 드리우는 그늘은 크다. 큰 나무는 열매로, 혹은 그늘로 나무의 수령과 덩치에 걸맞게 그 주변을 넉넉하게 감싸 안는 법이다. 양산과 김해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불교의 중심에 역사나 규모면에서 거목의 역할을 하는 중심이 있다는 것이다. 양산의 경우 제 15교구 본사 통도사가 양산 전체의 불교에 한 아름의 혜택을 선사하고 있고, 김해의 경우 금관가야의 역사 속에 꽃피워온 가야불교가 김해불교의 현재를 살찌우고 있다.

양산과 김해의 또 다른 공통점은 부산과 울산 등 대도시를 인접하고 있다는 특징 때문에 인접 도시의 발전과 더불어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

동부 경남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양산은 그동안 울산과 부산의 연계도시로 기능해오다 물금신도시의 발달로 교육, 문화 등에서 독립된 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김해 역시 부산 강서구와 인접, 부산 발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김해불교는 김해 지역만의 특징을 살린 풍성한 축제에 가야불교의 맥을 살려내며 그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

### # 양산

양산불교에서 통도사의 역할은 통도사의 안정이 곧 양산 불교의 안정으로 통할 정도로 지대하다. 양산 불교뿐 아니라 지역 문화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양산시 전체와 더불어 호흡하며 개산 1359년을 맞았다.

통도사는 수행, 포교, 복지의 균형 있는 발전이 돋보인다. 산내의 극락선원, 서운암 선원, 보광선원 등은 수행납자들의 정진 열기로 뜨거우며 강원에 이어 율원 개원을 위해 불사 중이다. 율원이 개원되면 선원, 강원과 더불어 인재양성의 골격을 갖추게 되는 셈.

매년 10월 열어온 개산대재는 개산조 자장율사의 뜻을 기리고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대표적인 지역축제. 초, 중, 고등학생 사생대회, 어린이집 원생들의 재롱잔치, 합창제, 부도헌다제 등 다양한 전시와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불화 전문 박물관인 성보박물관도 불교문화의 찬란한 가치를 알리는 공간이며 운영과 성보 관리 면에서 전국 성보박물관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입적한 월하 스님의 뜻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은 양로시설, 요양시설에 이어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추진하며 지역복지의 선두에 서 있다.

이 밖에도 도서관 건립, 친환경적 보행로 조성 등과 발맞춰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통도사 불사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통도사의 영향력은 양산에 그치지 않는다. 유난히 말사가 많은 울산지역에서도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이 울산BBS 설립 추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재정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통도사외엔 통도사 양산포교당, 원동 신흥사의 활동이 눈에 띄는 정도다. 지역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 경기장을 연 신흥사는 점심 대접, 떡 공양 등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경기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경기장이 지역에 단 3곳뿐인데 그중에서도 신흥사 경기장이 상태가 가장 좋고 스님도 늘 마음으로 챙겨주니 너무 고맙다"며 즐거워했다.

양산불교의 무한한 가능성이 통도사의 몫이라면 한계 또한 통도사에 기인한다. 거목이 크면 주위의 작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듯 양산불교는 독보적인 통도사의 역량 때문에 여타 사찰들의 활동이 위축돼 있기 때문이다. 거목이 드리운 그늘과 혜택을 뛰어 넘는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만 양산불교의 고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듯.

김해사암연합회는 매년 찬불합창제를 열면서 지역불교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양산 통도사 개산대재 행사 모습. 통도사 개산대재는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잡았다.

### # 김해

그에 비해 김해는 조계종뿐만 아니라 천태종, 법화종 등 기타 종단 사찰의 화합으로 지역불교의 고른 발전을 일궈낸 대표적 경우다.

민중불교가 살아있는 김해불교의 저력에 걸맞게 인구 42만의 중소도시에서 범 종단적인 연합 단체인 김해불교사암연합회의 사단법인화와 더불어 총 180평 규모의 가야불교문화원 건립이라는 큰 열매를 맺었다.

가야불교문화원은 가야불교의 설화를 역사로 탈바꿈시키는 중심 공간. 해로를 통해 인도불교가 최초로 전래됐다는 가야불교의 역사를 되살리는 가야불교사에 대한 홍보 영상물 상영을 비롯, 불교문화 관련 전시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김해불교사암연은 김수로왕 추모제, 찬불의 밤,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을 열며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다보선원, 수인사,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등의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99년 김해에 터를 잡은 다보선원은 전국에서 연 1천 여 명이 이곳을 찾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중 20%는 기독교인일 정도로 종교와 상관없이 수행 자체를 경함하고 싶은 이들이 많이 찾는다. 새벽 3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12시간의 좌선과 행선이 이어지며 청소년, 교사 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경상남도 교육청 교사 직무 연수 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지원장 혜보)은 청소년 포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도량. 청소년들을 마음공부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구상중이며 어린이회, 학생회, 청년회 법회도 꾸준히 열고 있다.

특히 혼성합창단은 김해불교사암련이 매년 열고 있는 합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4회째 맞이한 산사음악회에 이어 올 10월 2일에는 장애인을 위한 음악제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수인사(주지 성화) 어린이집은 전국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어린이 포교 원력이 크다.

설화를 역사로 바꾸는 일, 그 과제의 중심에 불교가 있다. 김해불교의 핵으로 역할을 다할 가야불교문화원 개원과 함께 가야국의 역사와 가야불교 역사 고증을 통해 '삼국유사'의 시대를 마감하고 '사국유사'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가 알차게 영글고 있다.

양산 · 김해=천미희 기자

##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 대중과 호흡하는 '종가' 구현

**현문 스님**
양산 통도사 주지

'수행 자체가 포교'라는 현문 스님은 통도사를 수행 잘하는 도량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평소 주지실과 가까운 선방의 수행에 방해가 될까 큰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자제한다. 특히 종무소 소임 스님들의 예불 참석과 대중공양 등을 정착시켜 종무 행정이 곧 수행임을 강조해왔다.

통도사의 무한한 가능성이 곧 불교의 미래임을 믿기에 현문 스님은 그동안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는 통도사를 만들기 위해 문화와 불교가 어우러진 개산대재를 열어왔고, 도서관 건립, 친환경적 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초파일 때 등 달고 떼는 일에 가장 먼저 나설 정도로 사중 일에 솔선수범하는 스님은 통도사 원주, 노전, 총무 소임를 두루 거쳤고 자장암 · 표충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 지역 노인들에 쉼터 제공

**영규 스님**
양산 신흥사 주지

22년 전 신흥사로 왔을 때, 다 쓰러져 가는 2동의 당우만 덩그러니 있었다. 도로가 없던 당시, 경운기를 교통수단으로 대광전 해체 복원불사를 마쳐 마침내 1992년 보물1120호로 지정케 했다.

또한 화엄전, 요사채, 범종각 등을 건립해 도량의 면모를 일신했다. 스님의 원력으로 복원된 신흥사는 지금 지역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 경기장까지 갖추고 있다.

사람의 그림자조차 구경하기 어렵던 도량이 대학생, 고등학생들의 수련대회 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스님은 재가 불자들의 평생 수행처가 될 재가자 총림 건립을 발원하고 있다.

### 차세대 포교에 열정

**지수 스님**
통도사 양산포교원 주지

재적사찰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지수 스님은 신도들에게 한달에 1번 꼭 정해진 절에 가서 공부하길 권한다. 도심 포교당의 특성상 신심 있는 불자들이 매일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재적 사찰의 중요성의 깨달았기 때문이다.

통도사와 범어사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포교원의 지리적 특성상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 불자들의 수행처로 기능하고 있다. 그래서 지수 스님은 연아 유치원, 양산불교청년회 등 지역의 어린이, 청년들의 신심을 증장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생명 지키는 수행 앞장

**혜등 스님**
양산 내원사 주지

기품있는 선풍 드날리는 비구니 스님들의 정진도량. 혜등 스님은 1979년 도용 스님을 입승으로 모시고 18명의 스님들이 모여 시작한 삼년결사를 내원사의 큰 자랑거리로 여긴다.

천성산 고속철 관통 위기로 인해 마음고생을 많이 한 스님은 그동안 지율스님이 벌여온 고속철 관통 반대 운동에도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왔다. 특히 내원사 정진대중들까지 부산역에서 천성산까지 삼보일배로 오르는 정진에 동참했을 정도.

혜등 스님은 천성산 고속철 관통 여부를 떠나 내원사가 수행도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또한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일깨우는 상징적인 도량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지역 화합불심 주도

**한파 스님**
김해 진영포교당 (화장사) 주지

김해불교사암연합회의 살아있는 역사로 통하는 스님은 김해불교의 화합을 이끄는 중심에 있었다. 조계종 사암연과 군소종단 사암연이 분리돼 있을 때 김해불교사암연으로 통합을 이끄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2대 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김해불교사암연의 사단법인화를 추진, 초대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가야불교문화원을 건립, 10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1983년 화장사에 온 스님은 폐사상태였던 화장사에 금단청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화엄보전을 중창했으며 앞으로 어린이집, 놀이방 등의 건립과 더불어 지역 청년 불자들의 양성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 가야불교 활성화에 노력

**성남 스님**
김해 자인사 주지
김해불교사암연 사무총장

김해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 김해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김해불교의 발전에 진력하는 스님은 가야불교문화원 건립, 김해사암연 사단법인화 등에 실무를 맡아 추진해왔다.

특히 잠자고 있는 가야불교를 깨워 가락불교의 역사를 되살려내야 한다는 스님은 가락문화제 집행위원장으로 불교문화를 김해시민들에게 알리는 중심에 서 있다. 타 종교인들과의 교분이 두터워 초파일에는 교회 봉고차를 동원 신도들을 나르기도 한다.

포교와 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스님은 복지학과에 이어 아동학과에 편입, 공부를 이어가고 있으며 내년부터 가야불교문화원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다.

### 국제화시대 '준비 끝'

**붇다 빠라 스님**
김해 다보선원 주지

동국대 선학과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 그곳에서 잠시 강의를 하다, 수행에 뜻을 두고 인도 분다가야, 미안마 마하시선원에서 다시 계를 받았다.

스님은 부처님 방식대로 수행하자는 수행열풍을 일으키며 대구, 대전, 서울 등지에 선원을 열어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인도불교 지원 프로그램과 수행지도자 과정 등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법이 흥하지 않으니 사법이 흥한다"는 스님은 요일별 수행모임을 만들어 철저하게 수행 위주의 도량을 만들어 김해불교뿐 아니라 한국불교의 원형을 만드는 중심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 불교 생활화 교육에 헌신

**혜진 스님**
김해 은하사 주지

올 4월 1일부터 은하사 주지를 맡았다. 그러나 스님이 25년 동안 살면서 잔뼈가 굵은 곳이라 은하사 분위기에 맞은 포교를 펼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구상중이다.

새벽, 사시예불에 직접 기도 수행하는 모습으로 신도들을 이끌고 있는 스님은 성보박물관 건립, 불교교양대학 설립 등을 통해 포교와 수행의 균형을 이뤄나갈 계획.

특히 불교교양대학은 입문자 과정을 지양하고 기도 수행과 실천을 겸한 불교의 생활화를 이끄는 교육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김해 지역 젊은 스님들이 중심이 돼 가야불교사 정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 '사랑의 이불' 주인공

**정억순 씨**
양산 미륵원 원장

'양산 이불 할매'로 통하는 정억순 보살은 양산 미륵원 원장으로 전국의 소년소녀가장에 사랑의 이불을 전달해왔다. 정 보살의 이불이 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라는 말이 있을 정도.

전국의 소방서, 경찰서는 물론 전국의 선방에도 정 보살은 좌복을 꾸준히 보내고 있다.

화랑어머니회를 이끌며 충효사상을 일깨워온 정 보살은 근래에는 경북 왜관에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과 청소년들의 대안학교를 겸한 복지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다.

### ▮가야불교의 비밀 파사석탑

### 허황후가 아유타국서 가져와 높이 120㎝, 허황옥릉 안치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보면, 16살의 아유타국(阿踰陀國:아요디야) 공주 허황옥은 하늘이 내린 가락국 왕을 찾아가 배필이 되라는 부모의 분부를 받들고 기원후 48년에 20여 명의 수행원과 함께 붉은 돛을 단 큰 배를 타고 2만5천리의 긴 항해 끝에 남해의 별포 나룻목에 이른다.

왕후는 올 때 파신(波神)의 노여움, 즉 풍랑을 막고 항해의 안전을 위해 배에 파사석탑(婆娑石塔 · 사진)을 싣고 왔다. 높이가 120㎝ 정도밖에 안되는 이 자그마한 석탑은 고려 중엽까지는 김해의 호계사에 보존되어 있다가 지금은 허황옥릉에 안치되어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치됐던 이 탑은 향토사학자인 허명철 금강병원 원장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지방문화재로 등록됐다. 허 원장은 그 돌이 우리나라에 없는 파사석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초기 인도 스투파의 축소형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김해지역에서는 향토사학자와 불교계를 중심으로 가야불교사를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